



박지성 맨유서 계속 땄까?

내년 7월 이후에도 박지성이 맨유에서 계속 땄 수 있을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 소속된 박지성(30)의 향후 거취에 팬들의 관심이 새삼 집중되고 있다.

맨유 공식 홈페이지의 '가십' 코너에는 20일 "박지성이 막대한 금액의 영입제안을 받아들일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베이징 타임스'의 기사를 토대로 한 이 글은 중국 슈퍼리그의 광저우 에버그란데가 박지성이 맨유에서 받는 연봉의 두 배(약 120억

재계약 시한 임박 관심 집중

중국서 연봉 120억 러브콜도

"떠날 이유 없다" 잔류 의지

원)을 주고라도 영입하기로 하고 광저우 헝다의 이장수 감독에게 박지성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박지성의 중국 리그 진출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박지성과 맨유의 계약 연장

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팬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2005년 7월 맨유에 입단한 박지성은 2009년 9월 재계약서에 서명해 맨유와의 계약기간을 2012년 6월까지로 늘려놓았다.

계약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박지성은 맨유와 재계약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정을 얻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팬들과 다양한 언론매체들은 재계약 협상에 나선 박지성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0~2011 시즌이 끝나자마자 박지성은

놓고 바이에른 뮌헨(독일), 유벤투스, 라지오(이탈리아) 등 유럽의 빅클럽이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박지성은 꾸준히 맨유에 남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지성은 최근 "구단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 팀(맨유)에 남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맨유의 미국 투어에 합류한 박지성은 18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맨유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맨유에 계속 머물고 싶다. 내가 떠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2년 전에도 박지성은 9월 중순에야 재계약 협상을 마쳤다.

대표급 선수를 관리하는 한 에이전트는 "박지성이 맨유와 결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박지성이 길면 2년까지 계약 기간을 늘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7경기 17골

프리시즌 대폭발 ... 뮌헨 상대 2골 리가토탈컵 결승 이끌어

손흥민(함부르크)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강호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혼자서 2골을 터트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20일(한국시간) 새벽 독일 마인츠의 코파세 아레나에서 열린 뮌헨과의 프리시즌 경기인 리가토탈컵 준결승에서 전반 7분 선제골에 이어 전반 30분 결승골까지 넣는 원맨쇼를 펼쳐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골로 손흥민은 2011~2012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치러진 프리시즌 7경기에 출전해 무려 17골을 꽂는 엄청난 골 감각을 선보였다.

특히 그동안 출전한 프리시즌 경기들이 약팀 위주였다면 뮌헨은 독일 최고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팀이어서 손흥민의 골은 더욱 값지다.

리가토탈컵은 정규리그에 앞서 분데스리가 소속 4개팀이 출전해 펼쳐는 프리시즌 경기로 전·후반 각 30분씩만 치러진다.

뮌헨은 이날 독일 축구대표팀의 주전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를 비롯해 네덜란드 대표팀의 공격수 아르연 로번과 프랑스 대표팀에서 활약한 프랑크 리베리, 2010 남아공 월드컵 득점왕인 토마스 뮐러(독일) 등 초호화 멤버로 나섰다.

이에 맞서 함부르크는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워 뮌헨의 화력에 맞붙을 뻔했고, 손흥민은 경기 초반 선제골을 넣어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손흥민은 전반 7분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데니스 아오고의 프리킥을 골 지역 오른쪽에서 받아 오른발 논스톱 슈트로 뮌헨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손흥민은 전반 30분 오른쪽 측면에서 미켈 디에크 마이아가 골 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내준 땅볼 크로스를 문전으로 쇄도하면서 골 지역 정면에서 슬라이딩 왼발슛으로 결승골을 꽂았다. /연합뉴스



폭염보다 뜨거운 승부

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대회 투르드프랑스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생 폴 트로와 사토에서 가프까지 이어진 162.5km의 제16 구간에서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노르웨이의 토르 허소포드가 3시간31분38초 만에 주파해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다. /연합뉴스

수아레스 2골 ... 우루과이 코파 결승행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8위인 우루과이가 2011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 진출했다.

우루과이는 19일(이하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라플라타에서 열린 페루와의 준결승전에서 루이스 수아레스가 혼자서 2골을 넣는 활약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두고 남미 최대 축구 잔치의 결승 고지에 올라섰다.

전반은 양팀 모두 짧은 패스 연결이 끊기고 공격 지역에서 둔한 움직임이 보이는 등 느슨한 조직력으로 득점 없이 마쳤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몸이 풀린 듯 우루과이는 수아레스의 공격력을 앞세워 페루 골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후반 7분 디에고 포틀란이 중앙에 몰린 수비수 사이로 날린 강력한 중거리슛이 페루의

라울 페르난데즈 골키퍼의 손에 맞고 튀어나오자 수아레스가 그대로 골문으로 밀어 넣으면서 우루과이의 첫 골이 터졌다. 포틀란의 중거리슛은 페루의 골키퍼가 손대지 않았다면 골문 바깥으로 나갔을 공이어서 페루 팬들의 아쉬움이 컸다.

골이후 12분 수아레스는 중앙선 부근에서 넘어온 알바로 페레이라의 패스를 받아 아르 부근까지 전진한 페루 골키퍼를 슬쩍 제치고 골대 안으로 굴러 넣었다.

결승 진출에 성공한 우루과이는 24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남미 축구의 정상에 도전한다.

20일 멘도사에서 열리는 파라과이와-베네수엘라의 준결승전에서 우루과이의 상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의족 스포린터' 피스토리우스 대구 세계육상 감동의 레이스

'의족 스포린터'로 유명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육상 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4)가 8월 27일부터 열리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일반 선수와 함께 감동의 레이스를 펼친다.

AP통신은 피스토리우스가 20일 이탈리아 리그나노에서 열린 육상대회 남자 400m에서 45초07을 찍고 결승선을 끊었다고 전했다.

종전 개인 최고기록(45초61)을 0.54초나 앞당긴 피스토리우스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A 기준기록(45초25)을 통과해 대구행 티켓을 자력으로 손에 넣었다. 국제육상연맹(IAAF) 규정을 보면 한 나라에

서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 종목에 A 기준기록을 통과한 자국 선수를 최대 3명까지 보낼 수 있다.

피스토리우스가 대구 스타디움 출발선상에서 서면 메이저 육상대회에서 일반 선수와 경쟁하는 최초의 장애인으로 기록된다.

장애를 딛고 일반인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피스토리우스의 도전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종아리뼈 없이 태어나 생후 11개월부터 양쪽 다리를 쓰지 못한 피스토리우스는 탄소 섬유 재질의 보철 다리를 붙이고 레이스에 나서 '블레이드 러너'라는 애칭을 얻었다. /연합뉴스

이재화 광주 배구협회 전무
프로배구 심판 감독관 선임



이재화 광주주시 배구협회 전무이사

가 19일 열린 한국 프로배구연맹(KOVO) 이사회에서 한국 프로배구연맹 심판 감독관에 선임됐다. 대한배구협회 이사이자 배구 국제심판인 이 감독관은 프로배구 2011~2012 시즌부터 3년간 재임하게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엔틱 식탁, 좌탁, 거실장, 침대

ITALY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ITALY



카우치-20종류

ITALY

SINCE 1992

100% 이탈리아 가구 직수입 도·소매

동구 장동 58-15 동구청-전남여고 사이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SPACE
홍스페이스
☎ 062-226-7567